

Julho
2020

7

민수기

풍성한 삶

본 교재는 날마다 솟는 샘물 2019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포어로도 번역되어 동시에 사용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무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셨으며(삼상 2:28),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지파로 선택하셨습니다(민 18:6).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도 택하셔서(행 13:17)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계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책임져야 했던 사항은 무엇이고, 나아가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25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7월에 묵상할 민수기 18~25장은 가데스에서 모압평지까지 이어지는 광야 여정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18~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몫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됩니다.

20~21장에서는 므리바 사건을 통해 거룩함의 중요성과 놋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아론의 죽음과 가나안 동쪽 지파 정벌 이야기를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용한 발락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지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 (18~19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을 범했을 때의 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도울 레위인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18:1~7). 레위인의 직무에도 성소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갈 수 없게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선택된 자들의 책임을 정확히 설정하셔서 그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 직분 자체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라는 동역자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책임이 그만큼 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분에 대한 가치를 먼저 기억한다면 주어진 책무에 기쁨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책임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문제에 메이지 않도록 특권

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의 죄를 담당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가중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분깃과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언약을 뜻하는 '소금 언약'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백성의 십일조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고, 레위인의 십일조가 제사장의 몫이 돼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18:8~32).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부정을 씻는 물'(19:9~10)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진영 밖 정한 곳에 잘 보관했다가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등 부정을 정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죄로부터 지키시며, 그에 맞는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은혜의 역사 (20~21장)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표출됩니다(20:2~13). 미리암의 죽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결과라는 언급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를 암시합니다. 이 와중에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낼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겼는데, 바로 '물이 없으므로'(20:2)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쳐 물이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신 이유는 모세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 불신앙의 정점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영토 내에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면 가나안까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에돔왕의 강력한 반대로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20:14~21), 미리암에 이어 제사장 아론까지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20:22~29). 그들은 모세에 버금가는 지도자를 잃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세대 계승의 역사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는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21:4~9).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게 됨을 보여 줍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은 요단 동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의 땅을 이미 그들에게 넘겼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된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21:10~35).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다운 삶이란(22~25장)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모압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은 모압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번민하게 했습니다(22:1~3).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모압왕 발락은 점술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발락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이는 발락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22:4~6).

발람을 이용하기 위해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복채를 들고 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일컬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7~12).

하지만 발람은 처음에는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더 나은 제안을 받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만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락에게로 향하는 발람에게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 세 번이나 그 길을 막으셨고, 나귀의 입을 열어 그의 발걸음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22:13~35).

발락은 온갖 회유와 술수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으로 밀어 넣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발람은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합니다(22:36~24:25). 발락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비록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도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언약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25:1~18).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택한 자에 대한 직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 직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영원한 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정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불평과 불만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 발람처럼 갈팡질팡하면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경거망동(輕舉妄動)하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전적 의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 2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 3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 4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 5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 6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 7 너와 네 아들은 제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6~7b절)
2.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1, 7a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동역자로 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에 대해 감사와 성실보다 불평과 게으름, 인색한 태도로 행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사명과 동역자는 누구이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에게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론 조상의 가문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하나님께서 개인이 저지른 죄에 가족과 가문까지 책임을 지게 하신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의 무거움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들로 그들의 직무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과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 주신 레위인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6~7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동역자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사명뿐만 아니라 도와줄 동역자들을 함께 선물로 주셨음도 기억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내게 주신 사명과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 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
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
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
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
들에게 영구한 뭇의 음식으로
주노라
- 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
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 10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
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
이 다 먹을지니라
- 11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
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뭇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
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 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
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
었은즉
-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
다 먹을 것이라
- 14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권한은 무엇입니까?(8절)
2. 하나님께서 주신 영구한 몫의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11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의 정결한 자마다 성물을 먹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론과 그 자녀에게 영구한 몫을 주시며 안정적으로 사역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항상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제물을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권한뿐 아니라, 먹을 음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8~12절).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으로 허락하신 음식은 지성물 중에서는 불사르지 않은 번제물 이외의 제물로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처음 거둔 소산물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을 이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신 까닭은 이들이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결함입니다(11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내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 15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 16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
- 17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 18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혼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 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15절)
2.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을 주시며 세우신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19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영구한 몫을 주시며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그 아들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시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채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업과 분깃이심을 믿으며, 나의 귀한 것 중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처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15절). 이 제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한 몫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증하시며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소금의 특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을 통해 맺으신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대신, 그 자신이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십니다(20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묵상하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 22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 23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하는 수고를 어떻게 갚는다고 말씀하십니까?(21, 24절)
2.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는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24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의 수고를 갚으시기 위해 다른 자손의 십일조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레위인의 헌신을 다른 지파의 십일조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까 봐 인색하게 드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내 삶의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동을 거듭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돕고, 회막을 나르며 세우고 다시 이동하기 위해 철거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다른 지파가 구별해 드린 십일조를 통해 갚겠다고 하셨습니다(21절). 이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을 도와 회막 봉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같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레위인은 땅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접어 두고, 오직 회막 봉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소득에서 십분의 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됨과 동시에,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을 살리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릴 때 나는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14**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15**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16**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 **17**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18**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혼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우리 가정을 지탱시키고 있는 중심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과연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2. 우리 가정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분깃이며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한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처음 익은 모든 열매와 특별히 드린 모든 것,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주셨습니다(13~15절). 요제물로 드린 제물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였고,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를 '소금 언약'이라 하시며, 후손에게까지 이르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심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19~2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네 분깃이며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깃과 기업을 얻었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31)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a)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부분은 아버지께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 때,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삶의 분깃과 기업에 눈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 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 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 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 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인 백성의 십일조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과하십니까?(26, 28절)
2. 레위인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십일조 중 어떤 것을 십일조로 드려야 합니까?(29~30, 32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십일조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보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하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기업이 없던 레위인도 예외 없이 십일조의 십일조로 섬겼는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섬기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섬겼던 레위인처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수고한 대가로 받은 다른 지파의 십일조 가운데 십분의 일, 특히 아름다운 것을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26, 30절). 이렇게 레위인이 드린 '십일조의 십일조'는 다시 하나님께 바쳐진 뒤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28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레위인이 받은 물질은 이미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였기에 십일조의 의무에서 예외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기업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그들이 누리는 소유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십일조를 드려 제사장을 섬겨야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 없이 주변에 있는 형제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형제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 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 4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 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 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 7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8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 10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부정한 자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

민수기 19:1~10

내용관찰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멧애를 메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끌고오면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잡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불사르라고 하셨다. 제사장은 물론, 송아지를 불사른 자와 재를 거둔 자는 부정하게 돼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하는 외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다.

연구와 묵상

1.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부정한 자는 스스로 정결한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이토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죄 사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2. 부정을 씻는 물의 재료를 진영 밖에서 태우고 진영 밖에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물의 재료지만 진영 밖 특정 장소에서만 불사르게 했다. 이는 전염성이 강한 부정함이 회막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한 개인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느낀 점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외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함에 노출됐을까 생각해 봤다. 수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했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지내야 했기에 그들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로 공동체 안의 정결함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영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큐티하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어진 기도제목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나를 보게됐다.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 객관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창구도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개인 경건 생활과 공동체의 상황이나 기도제목을 소홀히 여겼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 6시마다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며, 되도록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
2. 취침 전 기도 시간에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내 안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다. 또한 이 시간에 제자반과 다락방을 위한 기도제목도 함께 쓰겠다.

-오미영 집사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2절)
2. 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7~8, 10절)

연구와 묵상

3.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부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한 치의 부정함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 '구별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2절). 그리고 암소를 불사르고 거둔 재는 부정을 없애는 물을 위해 정한 곳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9절). 이때 함께 태운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재료들입니다(참조 레 14:49).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를 짊어진 제물에 접촉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부정함을 피할 수 없어 반드시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7~8, 10절). 정결하게 하는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게 요구된 사항은 말은 역할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이같이 구하기 힘든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의 효력은 한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 정결케 해주십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정결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정결함을 유지해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 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 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젖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 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 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 15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 1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 17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 18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 21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 22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내용관찰

1. 시체와 접촉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12, 19절)
2. 부정해졌음에도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3, 20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정결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부정함이 전염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현상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 삶에서 끊어 내야 할 부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 전염되고 있는 부정함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시체와 접촉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11절),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14절), 사람의 뼈 또는 무덤을 만진 사람(16절)은 7일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야 했고,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19절). 정결 의식은 부정함을 끊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일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13, 20절). 부정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닿는 곳곳마다 부정함이 전염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성막과 성소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 자체의 정결함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부정함의 전염을 끊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부정함의 전염을 끊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내용관찰

1. 신광야 가데스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행동합니까?(2~3절)
2. 온 회중이 항의하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6절)

연구와 묵상

3.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항의에 대응하지 않고 회막 문에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문제 상황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공동체 내부의 불평불만과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져 가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작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받았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렀을 때에(참조 민 13:25~26)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1절). 그녀의 죽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였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를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 회중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하며 그들 때문에 죽게 됐다고 역지를 부립니다(2~4절). 모세와 아론은 백성과 대조적으로 문제 발생과 동시에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6절). 그들은 흥분한 회중 앞에서는 입을 닫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입을 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게 하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8절). 이처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상황을 어지럽히지 말고, 모세와 아론처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간구합시다.

골방기도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으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해결책을 간구하게 하소서.

-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드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내용관찰

1. 이스라엘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10~11절)
2.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하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혈기를 부려 하나님께 혼난 적은 언제였습니까? 말과 행동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내려놓거나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10절).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며 혈기를 부립니다. 또 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11절).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다는 점입니다(12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그 결과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과 행동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 15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 16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 17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 18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 19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 20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 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내용관찰

1. 모세가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6~17절)
2. 에돔왕은 어떻게 반응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18, 20~21절)

연구와 묵상

3. 에돔왕의 대적에 모세가 길을 돌이켜 평화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참조 신 2:4~5, 23:7)

느낀 점

4.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회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가데스에서 에돔 영토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족속과의 형제 관계를 근거로 이 길을 사용하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14~17절). 그러나 에돔왕은 그들의 길을 막아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막았습니다(18, 20절). 사실 이 두 민족의 관계는 호의적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21절). 에돔의 거절로 인한 불편함은 너무나 컸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참조 신 2:4~5, 23:7). 또한 모세는 에돔왕에게 선포한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16절). 이처럼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해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통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서로 나눠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먹을 것과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문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4~6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두 번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 백성과 짐승들이 해갈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7~12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함으로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죄에 대해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매 순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
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
에 이르렀더니

23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
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24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
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
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
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
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
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
에게로 돌아가리라

27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을 따
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
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
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
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
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
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
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
안 애곡하였더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3~24절)
2.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을 대비해 무엇을 진행하십니까?(26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하는 장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순종을 결단하겠습니까?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23~24, 28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죽음을 삼십 일 동안 애도한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맞이한 죽음이기에 모든 백성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29절).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의 수고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에서 범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 대제사장의 임무와 지도자의 역할을 계승하게 하신 일입니다(25~26절). 비록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입성은 좌절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음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1 네겍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 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민수기 21:1~9

내용관찰

하나님께서서는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멸하셨다. 에돔의 방해로 땅을 우회하게 된 일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불평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 징계하셨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위에 뱀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셨다.

연구와 묵상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불평불만을 터뜨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이 죽게 하셨다. 백성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불뱀을 통한 심판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의 회개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2. 하나님께서 뱀뱀을 쳐다보는 자를 구원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모든 자를 살리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뱀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느낀 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만 급급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일터에서 적응 하지 못해 업무에 치여있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사역훈련 과제에 대한 불안도 커졌고, 주님을 알아 가는 기쁨도 놓치게 됐다.

과제를 통해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을 회개한다. 또한 집안일과 회사 일을 감당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회개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과 적용

1. 훈련 과제의 부담으로 짜증 났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매일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겠다.
2.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며, 불평과 불만이 가족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다.

- 서수희 집사

내용관찰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4~6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어나게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8~9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뱀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요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어떤 죄의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는 일로 불평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4~6절).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모세에게 이 심판이 떠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7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셔서 이 뱀뱀을 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8~9절). 성경에서 뱀은 죄악을 상징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뱀뱀을 보고 살게 된 일은 죽어 가는 죄인이 동물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장대에 달린 뱀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해(참조 요 3:13~14),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리키며(참조 고전 1:23~24),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모든 죄악과 불신앙을 해독하는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 10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 11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 12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 13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 14 이러므로 여호와와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 15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논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 16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 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 18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팼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 20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내용관찰

1. 브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16절)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물은 누가 팠습니까?(18절)

연구와 묵상

3.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광야에서 우물의 위치를 알려 주시고 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백성의 광야 이동에 관해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동하고 자는 것, 심지어 입고 신는 것까지 책임지셨습니다(참조 신 29:5). 오늘 본문은 '여호와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브엘의 우물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16~18절).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에 이르기 전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브엘에 우물을 파게 하심으로 생명과 같은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20절).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 드린 찬송에는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 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의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18절).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그 베푸신 은혜에 어떤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까? 내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립시다.

골방기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 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 22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북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 25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내용관찰

1.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혼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22절)
2.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25절)

연구와 묵상

3. 아모리왕 시혼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아모리왕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보다 내 능력과 계획을 과신해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모리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진멸의 대상으로(참조 신 7:1~2), 아브라함 당시부터 죄악으로 인해 멸망이 예언됐던 족속입니다(참조 창 15:16). 이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길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모리왕 시혼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헤스본과 아르논에 이르는 땅은 시혼이 모압왕에게서 빼앗은 땅으로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혼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모든 땅을 뺏기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은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참조 잠 16:18).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침내 얻게 될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교만함과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 27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
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
다
-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
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 29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
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
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
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 30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
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
다 하였더라
- 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
주하였더니
- 32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
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빠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
을 몰아 내었더라
- 33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
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
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
라
-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
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지니라
- 35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
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
였더라

내용관찰

1.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이후 바산 길로 올라가 상대하게 된 왕은 누구입니까?(33절)
2.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앞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34절)

연구와 묵상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산왕 옥과 그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불평과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바산 족속과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세상의 온갖 도전에 주눅 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남쪽에 이어 북쪽 바산지역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산왕 옥과 그 족속은 장대한 족속인데다가(참조 신 1:28), 그들의 성읍은 요새화된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34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골방기도 이 세상의 강함에 무릎 꿇지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 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 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 5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 6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이니라

내용관찰

1.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2. 두려움에 휩싸인 발락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5~6절)

연구와 묵상

3.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점술가를 의지하는 발락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발락처럼 두려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요즘 내가 겪는 재정적 압박과 인간 관계, 업무 문제에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모압평지에 도착했습니다(1절).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규모와 아모리인 족속과 싸워 승리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2~3절). 이에 발락은 브돌의 점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4~6절). 발람의 능력이라면 복과 저주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발락이 이스라엘의 승전 원인이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면 사람의 주술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아야 백성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 또한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닥친 두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골방기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라 5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우리 가정 안에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발람처럼 죄의 유혹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2. 모압 귀족들의 손에 들려 있던 복채처럼 우리 가정의 마음을 빼앗은 복채는 무엇이며, 이를 끊어 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죄의 유혹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끊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연이어 이기고, 모압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압왕 발락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심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가자, 발람은 그들을 맞이하며 유숙할 것을 권했습니다(4~8절).

발람은 왜 자신의 민족을 저주하려고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하룻밤 유숙할 것을 권면했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저주하려고 온 자들에게 유숙을 권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발람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복채에 눈이 어두워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죄가 머물도록 두지 말라는 뜻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작은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락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통제로 인해 저주는 하지 못하면서도, 발락의 요청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죄는 처음부터 경계해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해도 그것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만일 지금 발람과 같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경계선을 확고히 해, 죄의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 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내용관찰

1. 발락은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7절)

2.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12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백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깨달은 적은 언제였습니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모압왕 발락이 전하는 말과 복채를 갖고 발람에게 향했습니다(7절). 그들이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하룻밤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므로, 장로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아침이 밝자 발람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발람은 점술가, 즉 점쟁이였습니다(참조 수 13:2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점쟁이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 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

민수기 22:15~20

내용관찰

발락은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그를 크고 존귀하게 해 주겠다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거듭 요청했다. 발람은 은금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고관들에게 자고 가라고 권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만 준행하라고 당부하셨다.

연구와 묵상

1.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고관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발람은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의무감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발락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께서 명령을 거둬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락의 신하들을 묵게 했다.
2.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난번과 다르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길을 가게 하셨다. 발람 자신이 욕심 때문에 뜰리고 있는 행위를 멈춰야 했지만, 그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반응의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발람의 몫이었다.

느낀 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는지를 돌아보게 됐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최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용일 때가 많음을 회개한다. 특히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큰 성과를 내고 능력을 인정받는데에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회개한다. 또 태운이와 예진이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기보다, 세상 기준의 성공과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했던 것을 회개한다. 부와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발람이 되지 않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겠다.

결단과 적용

1. 최근에 바쁘다는 이유로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수요일은 특별히 출근 시간을 30분 더 당겨서라도 예배 시간을 꼭 확보하겠다.
2. 예진이의 고교 진학, 태훈이의 진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매주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
 - 김훈일 집사

내용관찰

1. 발락은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15~17절)
2. 발람은 발락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18~19절)

연구와 묵상

3. 발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했습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결국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한 발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말씀보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죄를 끊기 위해 내가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발락은 발람이 모압 귀족들과 함께 오지 않자, 다시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15절). 이들은 발람이 모압에 온다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16~17절). 여기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에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의 눈이 재물과 명예에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19절)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만 준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20절). 혹시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 22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 23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 24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 25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 26 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 27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 뒤에 엮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라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용관찰

1.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22절)
2. 나귀는 여호와와 사자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23~24, 26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이 나귀도 보는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 온전히 열리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 축적을 예민하게 세우려면 어떤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 세 번이나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22, 24, 26절). 그런데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와 사자를 발견하고 세 번 모두 피하려고 했지만, 영적 시각이 어두워진 발람은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23, 25, 27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평소와 달리 주인의 뜻을 거역한 자신이 왜 맞아야 하는지 발람에게 묻습니다. 이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한 말씀을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20절)를 각인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나귀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죽이려 했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께 죽을 수 있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영안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죄로 어두워졌던 영안이 다시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소서.

-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 32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 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 35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 37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 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 39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트 후셋에 이르러서는
- 40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 41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내용관찰

1.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자,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31, 34절)
2.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알린 내용은 무엇입니까?(35절)

연구와 묵상

3. 자신이 가는 길이 사악함을 알고도 발람이 조건부 화법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최악의 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향응을 받는 발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죄를 회개했지만 머뭇거리며 끊지 못하고 내가 다시 짓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삶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끊기 위해 어떤 것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자, 발람도 여호와와 사자를 보게 됩니다 (31절). 발람은 자신의 길이 사악하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와 사자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여전히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34절)이라는 조건부 화법으로 피할 길을 찾습니다. 결국 여호와와 사자는 발람에게 모압왕 발락에게 가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35절).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발락은 국경까지 나와 그를 환대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압력과 포석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를 통해 호된 경고를 받은 발람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고관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발락과 함께 우상 숭배 장소인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이처럼 만약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라면 당장 멈춰 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사악한 발람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 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 2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 3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 4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 5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 6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 7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 8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 9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 10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 11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 12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내용관찰

1.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 했습니까?(7, 11절)
2.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8~10, 12절)

연구와 묵상

3. 발락의 기대를 저버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점술가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를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과 거룩한 말로 오늘 내가 축복의 말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고자 제단을 쌓고, 각종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1~2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상관없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8~10절). 사실 발락의 의도는 발람이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7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민족임을 드러내십니다. 발락은 발람의 마음만 얻으면 축복과 저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뜻과 달리 이스라엘을 향해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복과 화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항상 내 삶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기필코 이뤄짐을 확신하게 하소서.

- 13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 14 소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 15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볼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 16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 17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 18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 20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 21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 22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 23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 24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 25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 26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내용관찰

1.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3절)
2. 발락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26절)

연구와 묵상

3. 발람의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허물과 반역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세상의 위협과 비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선택해 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오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온 진영을 보고 그 위용에 압도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게 합니다(13절).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곱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발람의 저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과 복술이 없음을 선언하시고(23절), 인간의 방해와 협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26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실천하겠습니까?

골방기도 세상의 방해와 협박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 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해 나병에서 치유된 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 가족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떠올리며, 이를 통해 올려 드린 감사의 고백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함께기도하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발람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9~12,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모압왕 발락에게로 향합니다(21절).

하나님께서서는 발람의 이런 행동에 진노하셨고,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22절). 칼을 들고 선 여호와와 사자를 발견한 나귀는 길을 돌아가려 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발람은 세 번이나 나귀를 채찍질하고 때리며 자신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23~28절).

발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이 제시한 물질에 마음을 뺏겨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고 모압으로 나아갔습니다(참조 벨후 2:15~16).

계속되는 발람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허용하시는 것 같았지만, 발람에게 진노하시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음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말며,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미혹된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남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 역시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같은 삶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눈에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27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 28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 29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 30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 1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 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 3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옆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 5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6 그 벌어진 것이 골짜기 같고 강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 7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 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 9 끓어 앓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내용관찰

1. 발락이 또다시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입니까?(23:28)

2. 발락이 데려간 곳에서 발람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24:1)

연구와 묵상

3. 장소를 바꾸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고 발락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자주 불평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할 발람이 거듭 축복을 선포하자, 발락은 또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 간 곳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브올산이었습니다(23:28). 발락은 바알 신앙의 본산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내려다보면 그들을 향해 저주할 마음이 생기리라 여긴 것입니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계략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24:1). 그는 비로소 권력이나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 결과 점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술가 발람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환상까지 보여 주시며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24:3~9). 이는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먼저 생각하라는 뜻을 알리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혹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로 결단합시다.

골방기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 10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 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 11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 12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 13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 14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 15 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엮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 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 18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 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발락과 발람

민수기 24:10~19

내용관찰

발람의 세 번째 예언마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끝나자, 모압왕 발락은 발람에게 노해 약속했던 보상도 없이 그를 쫓아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변하고, 먼 미래에 이스라엘 중에서 '한 별',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연구와 묵상

1.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실패하자, 발락과 발람이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에 뜻을 같이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발락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약속했던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발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겉으로 볼 때 이 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핑계 삼았다.
2. 후일에 이스라엘에서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이 예언은 사무엘하 8장 2절과 14절에 기록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나타낸다.

'한 별'은 새벽별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를 뜻하고, '한 규'는 그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말한다.

느낀 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굽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모습이 생각나 너무 부끄러웠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순종보다 여전히 핑계로 일관하던 내 모습을 회개한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를 했던 모습도 회개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결단과 적용

1.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핑계로 삶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인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끼리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도록 하겠다.
2. 사역훈련을 앞두고 원치 않은 업무를 맡아 내 상황을 몰라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일주일간 불평은 그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겠다.

- 류정아 집사

내용관찰

1.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13절)
2.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7~19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발람의 입술을 통해 발람의 계락을 막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발락과 발람처럼 내 뜻대로 행하다가 안 되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발락과 발람 같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누구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11~13절). 발락은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발람도 재물에 욕심이 있었기에 발락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은 도리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와 모압과 에돔을 용감하게 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17~19절).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예언했습니다. 발람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락을 막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참조 엡 5:16~17)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욕심에 눈이 멀어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
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
르리로다 하고

21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
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
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
다

22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
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23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24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
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
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
라

내용관찰

1. 발람이 모압에 이어 예언한 민족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20~22, 24절)
2. 세 민족에 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23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 대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려면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발람은 모압에 이어 주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20~22, 24절). 아말렉뿐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겐 족속의 운명, 앗수르와 에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23절).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였던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주변 민족도 다스리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참조 창 12:17, 20:17). 이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민족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산당과 브올산에서도 모압왕 발락의 음모를 전복시키고, 발람을 그로부터 떠나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신다고 잘못 판단해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 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열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 9 그 열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내용관찰

1. 싯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까?
(1~3절)
2. 비느하스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벌어진 죄악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8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에 단호하게 대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이방 풍속에 동화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끊지 못한 안목의 정욕과 죄는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처럼 단호하게 죄를 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싯딤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함에 빠져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 대상에서 진노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바알을 숭배했습니다(1~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백성에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라고 하십니다(4절). 그 가운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 음행한 자들을 현장에서 죽이고, 열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훼손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6~9절). 이는 발람을 통한 발락의 저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내기 위해 항상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골방기도 내게 있는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어 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7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 18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11절)
2. 이 일로 비느하스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12~13절)

연구와 묵상

3.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과 헌신으로 음란의 죄에 빠진 민족 전체가 용서 받은 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단호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 유혹과 죄를 단호하게 끊어 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11절). 이 일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12~13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시작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중에도 한 가문의 지도자가 거리낌 없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란을 일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14~15절). 이렇게 지도자까지 무너뜨린 음란함은 비느하스의 담대한 행동으로 정리됐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로, 아버지 형제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셨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참조 레 10:1~2).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합니다(참조 출 34:14).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죄를 끊어 낼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과 죄를 완전히 근절하게 하소서.

1

직분, 선물인가 부담인가

마음의 문을 열며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자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바탕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 때부터 갖는 권리다.” 루터의 주장대로 우리 모두는 제사장직을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과거에 누릴 수 없었던 직분을 선물로 여겨야 하지만, 때로는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이며,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5, 7a절)
2.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제사장 직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7b절)
3.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몫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8, 11, 19절) ‘영구한 몫의 음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
4. 제사장들이 '영구한 몫의 음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5. 오늘날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6.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읽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 자체도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자신의 직무에 힘쓰며 영구한 몫의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유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부담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드러야 할 헌물들은 부담스러워 하며, 자신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담들을 내려놓고 제사장 직분 자체를 선물로 여기며,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2 불평은 그치고 감사는 넘치게

마음의 문을 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낮에 작열하는 태양은 마치 '저주와 혹독한 시련'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일은 무척 지치고 힘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뒷전이 되고, 덥고 짜증 나고 갈증 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뺏겨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5절)
2.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6절)
3.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8~9절)

-
4. 하나님께서 불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참조 요 3:14~16)
5.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6. 우리 공동체가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반역과 원망, 의심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옹졸하게 여기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불뱀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세우시고,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장대에 매단 불뱀을 보면 살아난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불평 불만을 그치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

상황을 이기는 믿음

마음의 문을 열며

“언더독(underdog) 효과”란 경쟁에서 열세에 처한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려는 심리적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데, 객관적 전력이 약한 팀을 향해 박수를 보내면서 승패와 무관하게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이와 다릅니다. 세상은 전력이 약하다고 봐주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결코 영적 전쟁에서는 “언더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시혼왕은 어느 족속의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 땅을 지나려 하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21~23절)
2. 시혼왕과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의 통행을 막은 결과는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24~26절, 참조 느 9:22; 시 135:10~11)
3. 시혼왕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투 경험이 별로 없던 이스라엘이 시혼왕과 아모리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29, 34절, 참조 신 3:2, 사 11:21)

-
4. 하나님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33절, 참조 창 15:7, 13, 16)

 5.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축복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6.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삶 가운데서 결단해야 할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아모리인은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아 사는 '정복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유랑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아모리인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길을 막아서는 에돔왕과 그 백성을 피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해야 할 족속으로, 그 어떤 양해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승산 없는 싸움, 전력 차가 나는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4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귀에 동풍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마치 봄에 부는 동풍이 귀에 살랑거리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말처럼 다른 이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흘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도 ‘마이동풍’ 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발람은 자신을 다시 찾아온 모압 고관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21~22a절, 참조 22:12, 20)
2. 발람을 태운 나귀는 길에서 여호와와 사자를 보자 어떻게 반응했으며, 나귀의 반응을 본 발람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22b~27절)
3.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과 대화하게 하셨는데, 이 내용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28~30절, 참조 뱀후 2:15~16)

-
4.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상황을 설명하신 이유와 발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34절)
5.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 및 큐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6.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삶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각자의 일상을 돌아보고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발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사자와 나귀를 사용해 전하시려고 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과 발람의 눈을 여셔서 자신의 뜻을 보이셨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발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큐티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